



PRESS RELEASE

배포일자: 2026년 9월 22일(화)

관련자료: 사진자료

제네시스 GV80, 영화 '인턴' 등장해 럭셔리 SUV 존재감 눈길

- 극 중 '선우' 역 맡은 배우 한소희의 차량으로 등장해 서사의 주요 공간적 배경 역할
- 세련된 외관 디자인과 고급스러우면서도 안락한 실내 공간 등 존재감 돋보여
-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럭셔리 주행 감성 갖춘 'GV80 하이브리드' 다음달 출시
- 제네시스, 다양한 콘텐츠 협업 바탕으로 브랜드 경험 강화하고 고객 점점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 GV80가 영화 '인턴'에 등장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영화 '인턴'은 론칭 3년 만에 패션계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선우'(배우 한소희)의 회사에 경력 37년 차 실버 인턴 '기호'(배우 최민식)가 입사하며 시작되는 세대와 직급을 뛰어넘는 오피스 라이프를 그린 이야기로, 지난 16일(수) 개봉했다.

GV80는 극 중 선우의 차량으로 등장해, 선우와 기호가 함께 이동하고 대화를 나누며 따뜻한 서사를 쌓아가는 주요 공간적 배경으로 활용된다.

특히 선우가 기호에게 도움을 받으며 마음을 열고 신뢰를 쌓기 시작하는 장소가 되는 GV80는 극 초반 어색하고 불편했던 공간에서 점차 마음의 안정을 얻고 편안한 이동과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변해간다.



PRESS RELEASE

관람객들은 영화 속 차량을 보며 GV80의 세련된 외관 디자인과 고급스러우면서도 안락한 실내 공간을 자연스럽게 살펴볼 수 있다.

GV80는 제네시스만의 ‘역동적인 우아함(Athletic Elegance)’이라는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역동적이면서도 유려한 외관과 함께 럭셔리 감성의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한편, GV80가 등장하는 영화 ‘인턴’은 오는 10월 16일(금)부터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9개국에서 개봉한다.

제네시스는 영화 콘텐츠를 매개로 국내를 넘어 아시아 관람객들에게도 제네시스 브랜드와 GV80의 상품성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제네시스는 영화, 전시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고객들에게 제품을 선보이며 우수한 상품성과 럭셔리 브랜드 감성을 전달하는 등 고객 접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네시스는 관계자는 “영화 ‘인턴’을 통해 GV80만의 역동적이면서도 우아한 디자인과 럭셔리 감성을 스크린에서도 자연스럽게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을 바탕으로 더 많은 고객들에게 제네시스의 매력을 알리고 브랜드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네시스는 브랜드의 첫 하이브리드 모델인 ‘GV80 하이브리드’를 다음달 국내 출시할 예정이다.



PRESS RELEASE

GV80 하이브리드는 차세대 2.5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바탕으로 정숙성과 선형적 가속감을 갖춰 전기차 수준의 조용하고 편안한 럭셔리 주행 감성을 구현했다.

이와 함께 합산 최고 출력 352 마력(PS), 합산 최대 토크 54.0kgf·m 를 발휘해 GV80 2.5 터보 모델 대비 최고 출력은 약 16%, 최대 토크는 약 26% 높였으며, 연구소 자체 시험 기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까지 약 7.1 초만에 가속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했다. [끝]

<사진 설명> 제네시스 GV80, 영화 ‘인턴’ 등장해 럭셔리 SUV 존재감 눈길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 GV80가 영화 ‘인턴’에 등장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 1) 영화 ‘인턴’ 스틸컷. 워너브러더스코리아(주) 제공.

사진 2) GV80

사진 3) GV80 하이브리드